

‘이달의 책, 이달의 저자’ 추천 후보작

궁리



● 왜 사냐면, ...웃지요

김열규 지음/궁리/308쪽/값 12,000원

한국인의 웃음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표정들을 다양한 코드로 해석해내고 있는 책이다. 한국 정신의 원류를 찾는 노학자의 일관된 학문적 열정이 담겨 있다.

소나무



● 퇴계와 고봉, 편지를 쓰다

김영두 옮김/소나무/608쪽/값 25,000원

퇴계와 고봉이 26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나는 애정과 존경의 편지를 지세한 주석과 함께 엮은 책으로 조선 시대 학문적 교류가 어떻게 인간적 교류로까지 확대되는지를 잘 보여준다.

효형출판



● 풍경에 다가서기

강영조 지음/효형출판/264쪽/값 18,000원

풍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요구하는 독특한 풍경미학 입문서이다. 무심코 지나치는 풍경을 의미 있게 바라볼 때 그 풍경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걸 알려준다.

사계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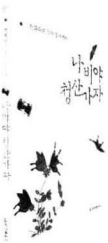


●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

정창권 풀어 씀/사계절/280쪽/값 12,000원

미암 유희춘이라는 조선 중기 관리가 남긴 11년 동안의 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쓴 노작으로 이를 통해 16세기 양반들의 생활사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.

청아출판사



● 나비아 청산가자

진회수 지음/청아출판사/248쪽/값 15,000원

전통음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드러낼 때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음악에 대한 품격 높은 에세이다.

그린비



● 도스토프스끼와 함께한 나날들

안나 그리고리에브나 도스토프스끼야 지음/최호정 옮김/그린비/688쪽/값 18,000원

도스토프스끼의 두 번째 부인 안나가 회상하는 대문호의 인간적인 면모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인상적인 회고록이다. 이 회고록을 통해 도스토프스끼의 작품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제공된다.

●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

김상봉 지음/한길사/400쪽/값 15,000원

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리스 비극의 전체상을 그리기 위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그리스 비극의 근본정신과 역사적 배경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.

한길사



● 은유로서의 질병

수전 손택 지음/이재원 옮김/이후/292쪽/값 15,000원

운감 은유와 왜곡에 둘러싸인 질병의 환상을 깨뜨리는 수전 손택의 에세이다. 저자는 질병은 치료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며 질병에 대한 은유와 낙인은 오히려 환자의 재활의지를 꺾는다고 말한다.

이후



● 우연에 기뻐 때도 있었다

황동규 지음/문학과지성사/120쪽/값 5,000원

‘상상력의 원형은 부활’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황동규 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철학을 담은 시집으로 그 명성에 값하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.

문학
과지성사



●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

레비 스트로스, 디디에 에리봉 대담/송래현 옮김/강/296쪽/값 12,000원

구조주의 인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《슬픈 열대》의 저자 레비 스트로스와 언론인 겸 문필가 디디에 에리봉의 대담집. 이 책은 레비 스트로스의 육성을 통해 그의 학문의 근본적 입장을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.

강



● 한국철학에세이

김교빈 지음/동녘/296쪽/값 9,500원

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김교빈 교수의 신작. 한국철학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쉬운 이해를 위해 인물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.

동녘



● 명주

방민호 지음/생각의나무/312쪽/값 13,000원

치열한 현장 비평을 수행하고 있는 소장평론가의 산문집. 문학적 연대기로서의 지난날들을 성찰하고 당대의 현실을 애정 어린 눈으로 살피고 있는 젊은 지성의 자화상이다.

생각의
나무

